스님·유림, 해남 대흥사서 시로 교류하다

국립광주박물관, '가련유사' 번역집 발간

초의 선사 관련 유묵 364점
박동춘 소장 기증하며 연구
1818, 1819년 진행된 시회
초의, 다산학단 참여해 교류
조선 불교, 유학자 교유 확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선시대 불교와 유림의 교유(交遊)를 확인할 수 있는 시회를 기록한 유묵이 번역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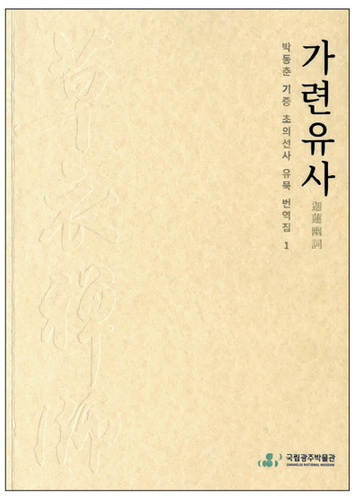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애령)은 조선 후기 대흥사에서 열렸던 시회에서 나온 시들을 기록한 〈가련유사(迦蓮幽詞)〉를 번역·출간했다.〈사진〉

〈가련유사〉 번역집은 '박동춘 기증 초의선사 유묵 번역집' 시리즈의 첫 결과물로, 2021년 1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초의 선사 관련 유묵과 문화재 총 169건 364점을 기증하며 연구·번역이 시작됐다. 이는 박동춘 소장이 스승 응송 스님에게 전해 받은 것으로 초의 선사 친필 서책과 당대 지식인들이 교유한 서신 등이 주를 이룬다. 기증 당시에도 조선 후기 차문화와 불교·유교의 교류 상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이에 국립광주박물관은 박동춘 소장 기증 문화재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우리 차문화의 연원과 아시아 차문화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번역사업에 착수했고, 〈가련유사〉의 첫 번역작업을 완료한 것이다.

〈가련유사〉는 초의 선사를 비롯한 대흥사 스님들과 다산 정약용의 제자들, 일명 다산학단이 1818·1819년 2차례 걸쳐 대흥사에서 개최한 시회(詩會)의 내용을 엮은 아회록(雅會錄)이다. 1818년 시회에는 색성 스님을 비롯해 윤종영·이기수·윤기호·윤종민·오도휴·윤병흠이 참석해 시로 교유했으며, 1819년에는 초의 선사와 철경·색성 스님을 비롯해 윤종정·윤종영·윤종심·윤기호·윤종민·윤종삼 등이 참여했다.

〈가련유사〉는 총 2권으로 1권은 1818년 시회의 시 210수를 담았는데, 그 내용은 각자가 운을 집은 후 운에 따라 시를 짓는 형식이다. 1819년 시회의 시 90수를 기록한 2권은 봄, 여름, 가을 절기에 맞춰 3자의 운을 따라 시를 짓고 있다.



초의와 다산학단이 열었던 이 시회는 일종의 불·유 교유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중국 진라 고승 혜원(335~417)의 동림고사를 모방했기 때문이다. 동림사는 혜원의 주석 사찰로, 그의 수행력을 흠모했던 도연명, 육수정 등이 그곳에서 혜원과 격의없는 교류를 나눴다. 실제, 윤종영이 쓴 〈가련유사〉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산방에 함께 묵었는데, 아암의 문도 색성이 내외전에 두루 통하고 시에도 능했다. 마침내 동림고사를 모방해 고사의 참여 인원보다 세 사람이 더 참가했다.〈중략〉 '가련(迦蓮)'은 무엇인가. 절을 주장한 것이요. '유사(幽詞)'는 산 중의 일을 읊은 것이다. 이는 산문(대흥사)의 역사로 삼을만 하다."

유묵을 기증한 박동춘 소장은 "시회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산이 강진 유배시절 다산초당에서 기른 제자들이 주도한 시회라는 특징을 보인다. 다산계 제자로는 색성 스님과 윤종영, 윤종심, 윤종삼 등이 있고 이기수, 오도휴 등은 다산에게 훈도를 받은 인물"이라며 "이 자료는 다산의 해배 이후 그의 제자들이 대흥사에 모여 시를 짓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의 우의를 이어간 현장 기록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애령 국립광주박물관장은 "〈가련유사〉는 조선 후기 호남지역 스님과 유림들이 종교와 사상을 넘어 시와 차를 나누며 격의 없이 교유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앞으로도 이저리 초의 선사 유묵 번역집 발간을 비롯한 박동춘 기증 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의 성과들이 조선 후기 문화사와 차문화 원형을 찾아가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서 3종 발간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3종의 학술서를 발간했다.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 석원효찬 기신론별기 연구·교정·영인〉은 원효 〈기신론별기〉에 대한 연구 논고, 교감본, 영인본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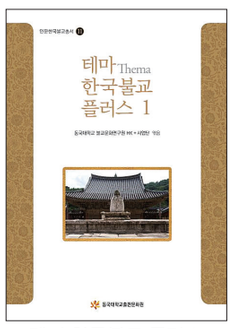
제1부 연구편에서는 원효 〈기신론별기〉를 문헌학과 계보학의 측면에서 조명했다. 제2부 교감편에서는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 석원효찬 〈기신론별기〉를 저본으로 하고 에도시대 1659년 간본을 비롯한 6종류의 텍스트를 비교본으로 하여 교감을 했다. 현존하는 원효 〈기신론별기〉 텍스트의 가장 고본이자 일본의 국보인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본을 저본으로 했다는 점과 최초로 원효 〈기신론별기〉 정본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서의 의의가 크다. 제3부 영인편에서는 쇼묘지소장·가나자와문고관리 석원효찬 〈기신론별기〉 텍스트를 영인해 실었다. 〈징관의 불교세계에 대한 해석-동아시아 불교의 관점에서〉는 징관에 관한 논고를 동아시아불교 관점에서 모아 간행한 최초의 전문서다.



기신론별기



징관의 불교세계에 대한 해석



테마 한국불교 플러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이 2023년 5월 12~13 양일간에 걸쳐 개최한 동국대·중국인민대·중앙민족대·용곡대 4개대학 공동학술대회 〈현대 한국화엄의 원류를 찾아서-징관과 동아시아 불교〉에서 발표된 논고와 기존에 발표된 징관에 관련된 논고를 모아 총 14편의 논고를 3부로 구성했다.

〈테마 한국불교 플러스〉 시리즈는 〈테마 한국불교〉 10권에 이어지는 인문한국불교총서다.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단의 아젠다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 문헌·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 연구 성과물이다. 근대 이후의 문헌 집성과 계보학적 이해에 초점을 맞춰 '전통'이 만들어진 '근대'에서 출발해 한국불교 전통의 형성 과정을 해부하고 역사상의 다층을 규명함으로써, 한국불교가 갖는 로컬리티와 글로벌리티가 결합된 글로컬리티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 문헌·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을 주제로 문헌학과 계보학의 관점에서 7개의 테마로 나눠 탐색했다. 임은호 기자


서해안 노을 감성 '맛집'으로 유명한 김제 망해사 일원이 명승이 된다.

'노을 맛집' 김제 망해사 일원 명승 된다

문화재청, 3월 11일 지정예고
"생물학적 · 학술 가치 뛰어나"

서해안 노을 감상 '맛집'으로 SNS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김제 진봉산 망해사(望海寺) 일원이 명승이 된다.

문화재청은 3월 11일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예고 했다. 예고된 지정구역은 34필지로, 5만5824㎡ 규모다.

김제 진봉면에 심포리 1004번지 일원에 자리한 망해사 일대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망해사와 만경강, 서해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명소다. 특히 바다를 바라보는 사찰이라는 뜻을 가진 망해사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예부터 서해 바다로 해가 저무는 경관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름나 있다.

새만금 방조제 조성으로 바닷물 염분 농도가 묽어져 염분이 거의 없는 담수(淡水)로 변화된 만경강 하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새도래지이자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생물학적 가치가 높다. 간척의 역사와 담수화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중요한 장소로서 학술적 가치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임은호 기자

100년 전 유리건판서 관촉사 미륵상 만난다

국박, 지역유산 시리즈 제2·3편
'공주·논산' '부여' 유튜브서 공개

다양한 지역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문화유산 시리즈 '유리건판으로 보는 100년 전 기록'을 진행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이 3월 13일 '공주·논산 편'과 '부여 편' 등 총 2편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정림사지 오층석탑' 등 다양한 성보 문화유산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은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100년 전 유리건판 이미지와 현재의 모습을 교차 제작했다.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과 '정림사지 오층석탑' '마곡사 오층석탑' '갑사 승탑'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무량사 극락전'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화하는 풍경과 담겨 다채로운 영상미로 선보여진다.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유리건판 사진.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이번 동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윤성용 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의 문화유산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3월 20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대만불광산사 순례



대한불교삼론종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대만 결연사찰인 대만 불광산사에서 종정 예하 혜승 스님을 보시고 순례를 진행하였기에 이를 알립니다. 순례에는 종회의장 지경 스님, 승정 명산 스님, 교리원장 남륜 스님, 총무부장 근혜 스님, 혜안 스님, 지윤 스님, 성혜 스님 등이 동참하였으며, 불광산사 성운대사 출가재일을 맞춰 삼론종은 고려대장경을 불광산사 장경루에 봉정하고, 성운대사를 추모하였습니다.

불기 2568년(2024) 3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3월 20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